

## “고진영·넬리 코르다 올해 뉴스 메이커 8위”

미국 골프다이제스트가 올해 뉴스 메이커 8위에 고진영(26)과 넬리 코르다(23·미국)를 올려놨다. 미국 골프다이제스트는 매해 12월 골프계 뉴스 메이커 상위 25위를 발표한다.

13일 골프다이제스트(golfdigest.co.kr)에 따르면 고진영과 코르다는 시즌 최종전인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전까지 4승씩 거두며 세계 랭킹 1위를 번갈아 기록하는 등 라이벌 관계를 이어갔다. 이들은 시즌 마지막 대회인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투어 최고의 영예인 올해의 선수상을 두고 경쟁했다.

코르다는 2월부터 11월에 걸쳐 4승을 비롯해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 등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고진영은 시즌 초반에는 주춤했지만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직전 8개 대회 중 4승을 기록하며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다.

이들은 최종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3라운드까지 공동 선두를 달리며 최종 4라운드에서 최후의 결투



▲ 넬리코르다 (좌)·고진영 (우), 사진=골프다이제스트

를 남겨놨다. 결과는 고진영의 완승. 고진영은 이 대회에서 72홀 중 63홀 연속 그린 적중에 성공했는데 골프다이제스트는 이를 두고 “코르다를 막기 위한 완벽함이었다.”고 호평했다.

고진영·코르다 외에 마쓰야마 히데키(일본, 9위), 브룩스 캠퍼(미국, 10위)도 뉴스메이커로 선정됐으며 브라이슨 디샬보(미국), 콜린 모리카와(미국), 패트릭 캔틀레이(미국), 조던 스피스(미국), 저스틴 토머스(미국),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 패티 타와타나깃(태국) 등이 25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상위 1~7위는 추후 발표된다.

## 스테픈 커리, 통산 3점슛 성공 1위 등극



▲ 스테픈 커리, 사진=nba.com

스테픈 커리가 3점슛의 역사를 새로 썼다.

15일 농구전문매체 ‘루키’ (rookie.co.kr)에 따르면 스테픈 커리는 전날 뉴욕 메디슨스퀘어가든에서 열린 2021~2022 NBA 정규시즌 골든스테이트와 뉴욕 닉스의 경기에 출전했다.

이날 경기를 앞두고 커리는 통산 2,972개의 3점을 성공하며 레이 알렌이 가지고 있던 역대 1위 기록(2,973개)에 단 1개 차로 다가갔던 상황이었다.

대기록을 작성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경기 시작 1분 4초 만에 커리는 정면에서 덩 스리를 꽂으며 레이 알렌의 역대 1위 기록과 동률을 이뤘다. 그리고 약 3분 20초 후에 앤드류 위긴스의 패스를 받아 또 다시 3점을 성공, 통산 2,974번째 3점을 기록하며 이 부문 역대 1위로 올라섰다.

이날 메디슨스퀘어가든에는 종전 기록 보유자였던 레이 알렌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 경기 전 커리에게 기록 달성을 미리 축하했다. 또 다른 3점슛의 전설이자 이 부문 3위 기록 보유자인 레지 밀러는 TNT 해설위원으로 현장을 찾아역시 커리의 대기록 수립을 눈앞에서 지켜봤다.

커리의 아버지인 텔 커리와 어머니 소냐 커리, 커리의 대학 시절 은사인 밥 맥킴롭 데이비스 대학 감독도 현장에 있었다. 2,974번째 3점슛을 달성한 후 커리는 아버지 텔 커리와 진한 포옹을 나눴고, 교체로 벤치로 물러난 후에는 어머니와 함께 기록 달성의 기쁨을 나눴다.

## “김광현, FA 선발 톱10”... MLB 잔류할 듯

메이저리그의 직장폐쇄로 FA 계약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FA 시장에는 매력적인 선수들이 즐비하다. 새로운 노사단체협약(CBA)이 체결된다면 FA 시장도 다시 활기를 찾을 것이다.



▲ 김광현, 사진=mlb.com

13일 ‘마이데일리’에 따르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2년 계약이 종료된 김광현(33)의 거취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김광현은 메이저리그 잔류와 한국 복귀라는 ‘업선’을 갖고 있다.

김광현이 올해 선발과 구원을 오가면서 7승 7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3.46을 기록했다. 과연 현재 FA 시장에서 그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메이저리그 통계 전문 사이트 ‘팬그래프’가 산정한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WAR)로 남은 FA 선발투수의 랭킹을 따졌을 때 김광현은 9위에 이름을 올린 것

으로 확인할 수 있다.

FA시장에 나온 선발투수 가운데 WAR가 가장 높은 선수는 카를로스 로돈(5.0)이며 이어 클레이튼 커쇼(4.8), 잭 그레인키(3.5), 타이러 앤더슨(2.8), 마이클 피네다(2.5), 기쿠치 유세이와 대니 더피어(2.2), 자니 쿠에토(2.0)이며 그 뒤를 김광현(1.8)이 따랐다. FA 선발투수 중 9번째이다. 브렛 앤더슨(1.5)이 톱 10의 마지막 자리를 차지했다.

김광현은 세인트루이스 잔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다른 팀 이적은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는 평가다. 현재까지 김광현의 새로운 팀으로 언급된 곳은 캔자스시티 로열스, 볼티모어 오리올스, 미네소타 트윈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시카고 화이트삭스 등이다. 이에 따라 김광현이 한국 리그로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통증 전문  
치료 병원

#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8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항,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전)  
센트럴 헬스, 웰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Clever Care, Kaiser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AARP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 시간 월~금 9am~6pm / 토 9am~12pm  
점심시간 12pm~1pm / 목 closed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사론  
한의원,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외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